

이원재 제1차관 “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위한 로드맵 수립할 것”

- 16일 건설안전 전문가 간담회…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대책 마련 논의 -

-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6일(월)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하였다.
 - 간담회에는 국토안전관리원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, 건설기술연구원, 한국건설산업연구원, 학계 등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대화를 이어나갔다.
-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“과거 행정처분 등 규제위주의 댄질식 제도보다, 현장에서의 자발적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기반의 중장기 관점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”가 있다면서,
 - “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계획으로, 오늘이 그 첫 단추가 되는 자리”라고 밝혔다.
- 또한, “전 건설단계에서 모든 건설주체들이 안전투자 비용에 대한 합리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하여야 한다” 라는 건설안전에 대한 기본 철학을 강조하면서,
 - “불법 행위 등은 원칙에 따라 처벌하되,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”하다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.
-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“올해 5월을 목표로 자율적인 안전관리로의 전환인 ‘건설안전 로드맵’을 수립 중으로,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”면서,

-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정책 마련을 주문하였다.

- 앞으로도,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「예방-대비-대응-복구」 전 단계에 걸친 건설안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.

2023. 1. 16.

국토교통부 대변인